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GOOD HAWK

가제 : 훌륭한 파수꾼 아가사

저자 : Joseph Elliott

출판사: Walker Books

발행일: 2019년 가을

분량 : 72,000 단어 (약 250 페이지)

연령 : 12~14세 / 시리즈 3부작 예정



* 이탈리아, 스페인 pre-empt로 판권 계약, 수십만 달러 규모로 영국/미국 출판계약 체결

여섯 부족이 사는 스카이 섬에서 북쪽 땅을 차지한 투아스 부족은 열네 살이 되면 각자 해야 할 몫이 정해진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 몰래 숨어들거나 공격해올지 모르는 침입자로부터 섬을 지키는 파수꾼 등 부족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저마다 맡은 일을 한다. 열다섯 살 아가사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파수꾼을 꿈꿨다. 이유는 단 하나, 바다와 파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낚시꾼들이 바다로 나갈 때 조르고 즐라 함께 바다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낚을 놓고 파도만 바라보다 그만 물에 빠져 죽기 일보직전까지 갔던 사건 이후로 배타는 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안전한 방어벽 위에서 왔다 갔다 거닐며 환한 아침부터 어두운 밤까지 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아가사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각자의 역할은 부족을 이끄는 현명한 어른들, 마스터들의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만큼 마침내 파수꾼으로 일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부족 사람들 모두가 아가사에게 정상이 아니다, 멍청한 애, 바보 같은 아이라고 수군대지만 아가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파수꾼이 되어 투아스 부족을 지키리라 마음 먹은 아가사는 굳건한 결심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큰 위험에 맞닥뜨린다.

열네 살을 맞아 평생 해야 할 일이 결정되는 날, 마스터들 앞에 불러 나간 제이미는 낚시꾼이 되라는 명령에 조금 충격을 받았다. 어떤 역할이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배타는 일이나 바다에 나가 파도와 맞서 싸우는 일보다는 기계나 물건을 고치고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제이미로써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역할을 정하는 의식은 매년 똑같은 순서로 진행됐는데, 뭔가 전에 없던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마스터들의 마스터, 로스가 다시 한 번 제이미의 이름을 호명하고 앞으로 나오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제이미는 물론 지켜보던 모든 부족민들이 숨죽여 일제히 로스를 바라보았다. 낚시꾼으로 지명된 후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선배 낚시꾼들이 생선 내장을 잔뜩 가지고 나와 온 몸에 문지른

후라 비릿한 생선 피가 똑똑 떨어지는 가운데 다시 회의장 중앙으로 나간 제이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투아스 부족의 평화와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라세이 섬에 사는 부족민 소녀와 정략결혼을 올릴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스카이 섬에서는 그 누구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점, 어떠한 형태로도 다른 부족과 정략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만 떠올려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섯 부족은 각자가 정한 법과 규칙대로 서로의 영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제이미는 마스터 로스의 떨리는 음성을 들으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투아스 부족, 또는 스카이 섬 전체의 평화를 뒤흔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제이미와 라세이 섬의 얼굴도 모르는 소녀와의 결혼식이 부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의식이라는 이야기가 입 소문을 타고 전해지면서 제이미는 갑자기 모두가 염려하고 신경 쓰는 존재가 되었다. 정작 제이미 자신은 마스터들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적당한 나이에 큰 결함도, 크게 튀는 장점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투아스의 다른 부족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현명한 마스터들이 제이미를 고른 이유가 있으리라는 어렵풋한 믿음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러나 낮선 의식까지 치르면서 섬의 평화를 지키려던 마스터들의 계획은 곧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긴 보트를 타고 몰래 숨어든 침입자들이 순식간에 섬 전체를 휩쓸어버리고, 잔혹한 공격에 투아스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어 당장 섬을 비우고 달아나야 했다. 시커먼 그림자처럼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다가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간 이 낮선 존재들은 누구일까?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목적일까? 모두가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아가사는 겨우 살아남아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직접 구하기로 마음 먹는다. 태어나 지금까지 아가사에게 유일한 가족이 된 사람들, 부족민들을 이 알 수 없는 악의 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아가사는 바다를 두려워하는 초보 낚시꾼 제이미와 한 팀이 되어 구출 작전을 시작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끌어 모아야만 하는 순간, 아가사에게서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특별한 힘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한다. 바로 동물들과 소통하고 그 생각을 읽는 신기한 능력이었다. 섬을 침입한 존재들을 휘두르는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떠올린 끔찍한 계획, 가족 같은 부족민들을 노예로 삼아 그 계획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곳곳에 숨어 있던 마스터들이 나타나 아가사와 제이미를 돕는 가운데, 과연 투아스 부족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쉐도우 스카이(Shadow Skye)’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남다른 카리스마로 영웅이 된 한 소녀의 끈질긴 투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저자 소개>

조셉 엘리엇(Joseph Elliott)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왕립 드라마스쿨(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BAFTA 수상 프로그램 CBeebies 시리즈를 비롯한 TV 어린이 프로그램과 코미디 프로그램에 배우로 출연하고 각본가로도 활동했다. 웨스트민스터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극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제목 : THE GIFTED, THE TALENTED AND ME

가제 : 천재들, 영재들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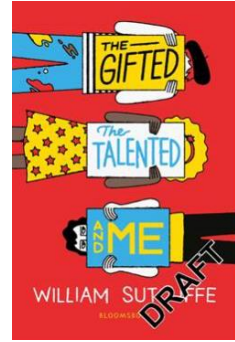
저자 : William Sutcliffe

출판사: Bloomsbury YA

발행일: 2019년 5월 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똑똑하고 재능 넘치는 영재들 사이에 낀 평범한 소년의 유쾌하고 씩씩한 성장기**

동네에 하나 뿐인 쇼핑몰에서 대부분 옷을 사 입고, 그래서 누가 새 옷을 입고 오면 어느 매장
에서 대충 얼마 주고 산 옷인지 아는 학교에 다니며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아온 샘은 엄마아빠의
난데없는 ‘가족회의’ 소집에 억지로 식탁에 앉는다. 왠지 들떠 있는 부모님의 표정은 역시나 놀라
운 소식으로 이어졌다. 아빠가 얼마 전 회사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이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아빠에게 회사가 있었다는 사
실조차 몰랐던 샘은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그 의미를 제대로 짚
어주었다. 지긋지긋한 이 동네를 떠나, 런던으로 이사를 간다는 뜻이었다!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런던은 공해만 엄청나고 인파로 들끓는 위험한 곳이라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고 단언
한 엄마였는데, 지금 그 소식을 전하는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런던 북부 영재학교’에 샘과
형 이선, 여동생 프레아가 모두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영재학교? 형 이선은 원
래 음악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고, 프레아는 이제 겨우 일곱 살이지만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대
부분 그림을 그리며 사는 아이라 그렇다 치고, 샘은 예술적인 재능이나 창의력하곤 거리가 아주
먼 아이였다. 그런데 시험도 치지 않고 덜컥 입학이라니? 의아해하던 샘은 아빠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셋 다 자동 입학이 될 정도로 엄청난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번 여름방학은 동네 친구들과 하루 종일 낄낄대며 장난치고, 밖에서 축구도 하면서 신나게 놀
생각에 부풀었던 샘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혹스럽기만 하다. 밴드를 꾸려서 하고 싶은 음악을
실컷 할 수 있다는 엄마의 설명에 형은 이미 잔뜩 신이 났고 프레아는 어려서 모르겠지만 샘은
아니었다. 영재 학교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부자가 됐다는 소식도 영 반갑지 않았다.

런던 햄스테드의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온 가족들은 방학 내내 집을 꾸미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샘은 짐도 다 풀지 않고 우두커니 큰 방안에 앉아 벽에 테니스 공이나 던지면서 시간을
보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예전 동네 친구들이 매일 뭘 하고 놀지, 어디서 만날 것인지 의논을
하는데 하나도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 아빠는 그런 샘을 달래다가도 버럭 화를 내
고, 엄마는 다 너를 위한 거다, 속상한 마음 이해한다고 했지만 샘이 보기에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림하고 사느라 못했던 일들을 다 해볼 생각에
하루 종일 분주히 돌아다녔다.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샘 혼자 뿐이었고, 샘은 가

죽 중 누구와도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시간은 흘러 결국 새 학기 첫날이 찾아오고, 영재학교라는 이름부터가 자신과는 영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 샘의 우려는 첫날부터 사실로 드러났다. 음악, 춤, 그림 같은 세부 전공을 정해야 하는데 샘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자 이 학교는 축구가 '금지'되어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다. 발로 공을 뱅뱅 차는 행동은 아주 미개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해진 자리도 없는 곳, 하루 시간표가 수학 같은 익숙한 과목도 있지만 큰 댄스 홀에 모여 호흡하고, 프리스타일 랩을 하는 독특한 수업이 더 많은 학교가 샘은 영 어색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고, 뭐 하나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어디를 둘러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브랜드 옷을 차려 입고 신상 운동화와 가방을 척척 걸친, 흡사 최신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아이들만 가득한 것도 말할 수 없이 불편했다. 엄마는 '창의적으로 아이 키우는 법'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걸고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다고 선언했지만 샘의 진짜 고민이나 이런 고충에 대해서는 별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넌 왜 만사에 그렇게 부정적이니'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자신과 달리 새로운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척척 잘만 적응하는 형과 동생을 보며 나날이 위축되기만 한다.

원하던 원치 않은 참여해야 하는 영재 학교의 수업들에 질질 끌려 가듯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샘은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연극 수업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흥미를 느낀 것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제니퍼라는 아이와 짝이 되어 수업을 듣는 동안 태어나 처음으로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을 느낀 샘은 제니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형에게 인생 조언을 구하면서 비슷한 구석이라곤 전혀 없어 멀게만 느껴지던 형과도 조금씩 가까워진다. 처음에는 도 자기를 만든다고 했다가, 시인이 되겠다고 하는 등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겠다며 열의를 불태우는 엄마에게도 연민을 느끼며, 샘은 밀어내려고만 했던 가족들, 주변 친구들의 삶에 천천히 가까이 다가간다. 뜻대로 되지 않는 첫사랑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 아무 것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던 형 이선의 밴드 도전이 큰 난항을 겪는 모습,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온 몸을 내던지는 아빠의 고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샘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자신과 늘 잘나고 특별해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 치부했던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친근한 사건들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힘겹게 찾아가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풍자와 위트를 가득 담아 따뜻한 시선으로 전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윌리엄 섯클리프(William Sutcliffe)는 2014년 CLIP 카네기 메달 결승에 오른 『The Wall』과 2016년 YA 도서상 결승에 오른 『Concentr8』, 26개 언어로 번역된 『We See Everything』을 쓴 작가다. 그 밖에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Are You Experienced?』와 『The Love Hexagon』, 『Bad Influence』 등을 썼다.